

‘노벨문학 도시’ 장흥 문학명소 기행 열풍

“한강 작가 문학적 뿌리”...천관문학관 등 전년비 4배 ↑ 방문 우드랜드 등 관광지도 활기...이청준 문학관 등 문학순례지 조성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장흥군을 찾는 문학인과 관광객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

19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은 아버지 한승원 작가의 고향이자 현재 활동 중인 집필지로 한강 작가의 문학적 뿌리로 알려져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 이후 장흥의 문학명소를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천관문학관, 한승원 생가, 한승원 문학산책길, 해산도굴 등에 전년 동기 대

비 많게는 4배가 넘는 방문객들이 다녀갔다.

장흥군 대덕읍에 위치한 천관문학관에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 570여명이었던 관람객이 최근 한 달 동안 2천400명으로 늘어났다.

천관문학관은 장흥 출신 문인들의 작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작가들을 위한 집필 공간도 마련돼 있다.

한승원 작가의 집필실인 해산도굴과 문학산책길, 한승원 생가를 찾는 발길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장흥군을 찾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생가와 여다지해변에 조성된 한승원 문학산책길.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장흥군을 찾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생가와 여다지해변에 조성된 한승원 문학산책길. (장흥군 제공)

도 지난 한 달 동안 전월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문학명소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편백숲 우드랜드, 토요시장, 정남진전망

대, 해동사 등 지역 관광지도 더불어 활기를 얻고 있다.

장흥군은 이러한 문학 기행 열풍을 노벨문학도시 성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의 기회로 보고, 2025년 군의 행·재정력을 새로운 문학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방침이다.

소설가 미백 이청준 문학관은 올해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5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문해수욕장-통일기원탑 구간에는 문학산책길을 만들어 장흥군이 문학인들의 순례지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국 백일장 대회 개최, 자연 속 북카페 조성, 장흥문학상 등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문학도시의 면모를 완성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은 한강 작가 가어린시절부터 시간을 보내며 문학적 정서를 형성한 곳”이라며 “장흥 대표 문인들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문학관광기행특구의 명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순천시, 정원·생태·문화콘텐츠 경제 효과 ‘톡톡’

순천만국가정원 발생 수익 ‘가든머니’ 시민복지 활용 3대 특구 본격 추진...글로벌 문화산업 메카 구체화

순천시가 정원, 생태산업,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창의적 도시 혁신으로 국제적 인정과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2023년 정원박람회 이후 5개월간의 준비를 마치고 올해 4월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순천만국가정원을 재개장했다.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을 콘셉트로 새롭게 변신한 국가정원은 스페이스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 같은 콘텐츠 선보였고, 인기 웹툰 ‘유미의 세포들’과 EBS 애니메이션 ‘두다다쿵’ 캐릭터를 활용해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정원 재개장 후 7개월간 37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흥행을 이어갔고, 발생한 수익 ‘가든머니’는 시민 복지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순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특구,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 특구, 교육부의 교육발전 특구에 선정되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3개를 차지했다.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국내·외 앵커 기업을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맞춤형 인재 양성과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민들이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한 문화도시 특구 사업의 하나로 지난 2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제1회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은 순천시의 문화산업 비전을 구체화한 행사로,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쇼와 애니메이션 상영회가 펼쳐지며 약 20만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았다.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이 참석해 시와의 교류를 약속했으며, 웹툰 기업 케나즈와 오노코리아가 순천으로 본사 이전을 발표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청년들에게 해답을 제시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젊음을 아깝지 않게 보내고, 중·노년층에게도 든든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순천시가 도심 곳곳에 정원·생태·문화콘텐츠를 입혀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 순천만국가정원 내 미로정원에 설치된 ‘유미의 세포들’ 두다다쿵 캐릭터 조형물, 노관규 순천시장, 송주읍에 건립될 그린바이오투박 지식산업센터 조감도, 순천만국가정원 전경. (순천시 제공)

구례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정원 분야·여순사건 지원·휴살리기 박람회 사례 선정

구례군은 “최근 균형 상황실에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심의회를 열고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례군은 총 6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적격심사, 2차 내부심사, 3차 외부심사 등 3단계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3개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우수 등급에는 백경수 지리산정원사업소 정원식물팀 주무관과 오창열 총무과 자치협력팀 팀장, 윤중근 주무관

이 뽑혔다. 백경수 주무관은 지리산정원 ‘전남 제3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되고, 구례 민간정원 3곳이 모두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선정되도록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오창열 팀장과 윤중근 주무관은 사각지대에 있던 여순사건 희생자가 국가로부터 희생자로 결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보상 소송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 등급으로는 농업기술센터 휴살리기팀이 선정됐다. 이 팀은 ‘2024 탄소

중립 휴살리기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관련 사업을 통해 구례군의 토양 친화적 이미지와 친환경 농업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직원들은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길용 부군수는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그 성과에 대해 제대로 평가 받고 보상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구례군 공직사회 전반에 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독려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낸 직원들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구례=임종길 기자

담양군,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직장 내·외 발생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방안 제시

담양군은 “최근 이병노 군수를 비롯한 정광선 부군수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예방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백영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는 폭력사고 사례분석, 조직 내에서의 책임, 예방을 위한 정책 실행 방법

등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다.



담양군은 “최근 이병노 군수를 비롯한 정광선 부군수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화순군, 고3 수험생 전원 특별장학금 지급

1인당 20만원씩 전달...“고된 학업·취업 준비에 격려·위안”

화순군은 “최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전원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학업에 전념하고 있

는 고3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1인당 20만원씩 전달했다.

특별장학금은 지난 5월 화순군과 귀뚜라미그룹 간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조성된 3천만원의 기금과 화순장

학회가 추가 지원한 6천400만원을 재원으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총 9천400만원 규모의 장학금을 모아 화순 관내 모든 3학년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수능을 준비하며 고된 학업과 취업 준비에 힘쓰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번 장학금이 작은 격려와 위안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곡성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3개소 선정

곡성·석곡·옥곡농협...사업비 3억 확보

곡성군은 1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농촌인력증대센터(공공형) 공모사업’에서 3개소 모두 선정되며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센터는 곡성농협(계축), 석곡농협(신규), 옥곡농협(신규)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72개 시·군에서 122개소가 신청해

이 중 90개소가 선정됐으며, 전남에서는 11개 시·군 20개소가 신청해 최종 15개소가 발탁됐다. 곡성군은 농업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계절근로자 수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8월부터 해 근무조건과 숙소 문제 등 공모 준비를 철저히 진행해 왔다.

곡성군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라오스에서 계절근로자 30명을 초청해 187

개 농가에 2천728명의 인력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농가의 98%가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내년에는 3월부터 곡성농협과 옥곡농협이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고, 5월에는 석곡농협이 추가로 투입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군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으로 지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3개 권역에 계절근로자 공급망이 구축됨으로써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명필 기자

장성군, 공립요양병원에 ‘나눔 숲’ 조성

녹색자금 2억 확보...실내·외 숲환경·무장애 나눔길 등

장성군이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사진) 일대에 나눔의 숲 조성을 추진해 군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19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2025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녹색자금 공모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실내·외 숲환경 조성, 무장애 나눔길 조성 등이 포함된다.

공모 선정을 통해 기금 2억원을 확보

한 장성군은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일대에 전역 국비로 1천500㎡ 규모 나눔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이다.

/장성=김문태 기자

